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준비 속도낸다

전남도, 통합 특별법 213개 후속 대응과제 점검 실행 계획·제도 정비 등...광주와 협력체계 구축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출범...앵커기업 유치 모색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213개 후속 과제를 전면 점검하며 7월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 이후 분야별 실행계획과 제도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한민국 광역 통합 1호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목표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세부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고도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5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은 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됐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행

황기연 부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실국별 이행 로드맵과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결국 경제와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별전담반은 전남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450조원 규모를 목표로 핵심 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주



관광기념품 수상작 보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25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대통령, 이부진 한국방문객지원위원장,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재명 대통령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서둘러야"

국가관광전략회의서 '최대한 신속한 논의' 지시 무한대로 끝 순 없어...유가족과 합의 잘 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재개항 논의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공항이 폐쇄된지 1년이 넘어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 달라"고 제안하자 이같이 말했다.

로 국제선 노선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이 "검토 중이지만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고 끄덕였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무안공항을 언제쯤 다시 열 수 있나. 사고 조사 때문에 현장 보존하려고 (폐쇄를 연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장관은 "그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상반기에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사고 현장 보존만 정확히 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면 (재)개항에 크게 반대한 것 같지 않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라. 무한대로 끝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 보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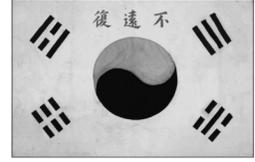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불원복 태극기' 전시

40년 만에 귀환...3·1절 등 앞두고 상징성 더해

전남도는 1986년부터 40년간 독립 기념관에 보관돼 온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不還復) 태극기'가 소장자의 뜻에 따라 2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기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항일 의병의 본향인 남도 태극기를 되돌리기 위해 전남도가 소장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박물관 건립 취지를 설명한 끝에 이뤄졌다. 제107주년 3·1절과 3월 5일 박물관 개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상징성은 더욱 크다.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원복 태극기'는 고광순 의병장이 지리산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던 당시 직접 만들어 사용한 태극기다. 태극 문양 위에 붉은 글씨로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不還復'을 수놓아, 국권 회복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광주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운영

9억7800만원 투입...우울·불안 시민 등 지원

광주시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됐으며, 시는 올해 예산 9억7800만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은 별도 검사 절차 없이 등록증명서만 소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

전남대병원, 환정보건센터 지정...환정보건 안전망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광주시, 2030년까지 5년간 국·시비 지원 환경유해인자 건강 영향 조사·예방 관리·상담교육 등 활동

전남대학교병원이 환정보건센터로 지정돼 광구권 환경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광구권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형 환정보건센터로 전남대병원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정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건강피해 예방과 관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남대병원은 권역형 환정보건센터로 지정돼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환정보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수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제적 건강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 지역 내 환경보건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와 전문적 대응을 통해 시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1면 '전남광주통합'서 계속

광주의 AI·자동차 산업과 광주연계권인 나주 혁신도시·농생명·식품·바이오·관광 지원 활용 자족형 경제권 구축, 동부권 석유화학·철강산업 고도화, 서남권 해양관광·미래에너지·자동차 산업 거점 조성, 남부권 국가 AI 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 연계해 미래 산업 성장 기반 구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처럼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군이 제시한 공약들은 대부분